

제한과 서술

윤재학

(경희대학교)

Yoon, Jae-Hak. 2004. Restriction and Predicatio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2(4), 121-141. This paper discusses several different but related asymmetries attested in the contrasts between attributive/restrictive and predicative uses of adjectives and definite descriptions of Korean and English. Based on a hypothesis that speed is weighed more heavily in identifying referents than in predication, it attempts to provide a functional explanation to the asymmetries. Moreover, it proposes the notions of restriction and predication as a crucial functional contrast in language.

주제어(Key Words): 제한(restriction), 서술(predication), attributive, predicative, 한정표현

1. 머리말

본 논문을 통하여 필자는 제한(restriction)과 서술(predication)의 대조성을 논의하고 이들이 언어분석에 있어서 핵심적인 의미 기능적 개념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 한다. 이에 대한 논거로서, 영어와 한국어 형용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제한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의 비대칭성과 부정확한 한정표현의 허용현상 등을 고찰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아래 한국어 예문 (1)-(2)에서는 형용사 '진정하다'와 '오래다'의 경우 제한적 사용은 가능하나 서술적 사용은 불가능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1) a. 진정한 영웅
b. *그 영웅은 진정하다.
- (2) a. 오랜 친구
b. *그 친구는 오래다.

유사한 영어의 사례를 살펴보면, 형용사 *criminal*과 *rural*은 제한적 사용과 서술적 사용이 허용되기는 하나, 의미가 상이한 경우로서 아래 (3), (4)와 같은 예가 있다. (3)의 경우 a는 변호사가 범죄자라는 의미이며, b는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라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4a)는 경찰관이 촌스런 것이고, (4b)는 지역적으로 농촌 경찰관이라는 의미이다.

- (3) a. That lawyer is criminal.
 b. He is a criminal lawyer.
- (4) a. The policeman is rural.
 b. He is a rural policeman.

한국어 구문과 영어 구문은 형태, 구조적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상에는 위에서 관찰된 현상이 두 언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Marchand(1966), Bolinger(1967) 등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열거하고,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차이가 유발되는가에 주된 관심을 두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한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 그리고 관련된 구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차이점은 제한과 서술의 의미 기능에서 도출되는 자연스런 결과이며, 이들의 분포상의 제약 사항은 형태적, 통사적 제약이 아닌 것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2. 제한과 서술의 개념

본 절에서는 제한과 서술의 개념적 차이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제한과 서술의 구분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은 전통적 술어논리학적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언어학적 직관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논리식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2.1 전통술어논리학의 문제점

전통적 술어논리학에서는 예문 (5)에 대한 논리식을 (6)과 같이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논리식 (6)이 표현하고 있는 진리조건은 존재 양화사로 결속되어 있는 변수 x 에 대한 세 개의 진리조건들의 연접으로 이루어져 있

다. 즉, 어떤 사과가 존재하며; 이 사과는 빨간색이고; 맛이 있다는 조건이다.¹⁾

(5) A red apple was delicious.

(6) $\exists x[\text{apple}(x) \ \& \ \text{red}(x) \ \& \ \text{delicious}(x)]$

이는 문장 (5)에 대한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진리조건으로서의 기본적인 목적에는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아래의 문장 (7)에 대한 논리식과 동일하며, (5)와 (7)의 차이에 대한 언어적 직관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7) A delicious apple was red.

따라서, 이에 대한 언어적 측면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논리식으로 (8a,b)와 같이 제한적 양화사를 도입하는 방식이 설명력에 있어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8a)는 빨간 사과라는 집합에 속하는 변수에 국한하여 양화사를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8b)는 맛있는 사과라는 집합에 국한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나타 내고자하는 주된 서술 내용이 각각 (a) '맛있다,' (b) '빨갳다'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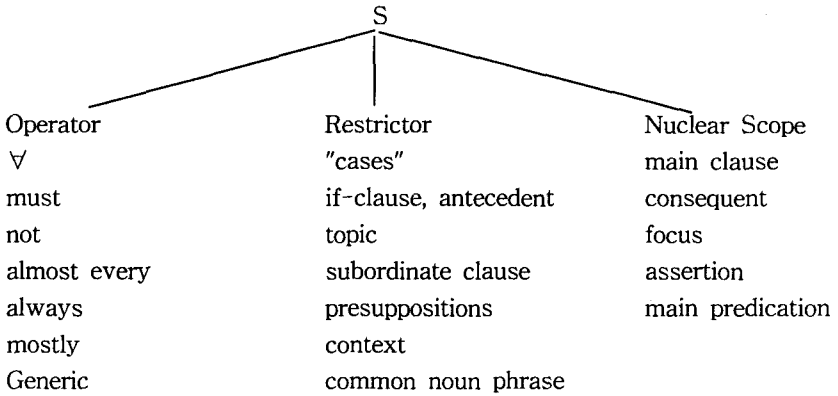
(8) a. $[\exists x: \text{apple}(x) \ \& \ \text{red}(x)] \text{delicious}(x)$

b. $[\exists x: \text{apple}(x) \ \& \ \text{delicious}(x)] \text{red}(x)$

형식 의미론의 전통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삼분구조(tripartite structure)라는 형식으로 해결이 시도되었다. 이에 따르면, 문장은 의미 구조적으로 연산자(operator), 제한자(restrictor), 핵심작용역(nuclear scope)으로 나누어지며, 이들은 각각 양화기능, 양화기능에 대한 입력, 양화사가 미치는 서술의 범위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아래 (9)에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어휘와 양화사의 예를 나타내었다.

(9) Tripartite Structure (Partee 1995:546)

1) 논의의 편의상 시제에 관한 의미표시는 생략한다.



참고로, 위의 제한적 양화사 표기를 삼분구조식 표기로 전환하면 아래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 (10) 삼분구조식 표기:
- a. [∃, apple(x) & red(x), delicious(x)]
 - b. [∃, apple(x) & delicious(x), red(x)]

제한과 서술은 위 논리식 (10)의 두 가지 표기에서는 제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각각 (10a) apple(x) & red(x), (6b) apple(x) & delicious(x)라는 조건으로 구분되고, 서술에 해당하는 부분은 (10a) delicious(x), (10b) red(x)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 양화사 등 연산자에 제한을 가하는 표현(즉 restrictor: 제한자)이 제한의 영역이고, 핵심작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서술과 일치하는 예이다.

2.2 개념적 구분

제한(restriction)과 서술(predication)은 보통명사, 형용사, 동사(구) 등 술어논리상의 서술어에 속하는 일정한 범주의 기능적 구분이다. 언어작용을

2) 물론, Partee의 경우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부정관사 *a*가 연산자의 기능을 한다는 전통적인 형식의미론과 약간의 거리를 두는 담화표상이론(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의 관점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되어야 한다. 따라서, (10)의 표기는 부정관사와 관련해서는 Partee의 주장과는 다르다.

크게 지시(reference)와 서술(predication)의 기능으로 나누어서, 지시는 어떤 개체를 구별해 내어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서술은 이 지시체에 대하여 어떤 특성을 부여하는 기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제한은 지시작용(reference)에 입력으로 제공되는 조건으로서 지시체를 선택하는데 관여하는 술어적 기능을 말한다. 제한과 서술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은 기능적으로 항상 상보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주어진 문장에서 특정의 서술어가 동일 단계에서 동시에 제한과 서술의 기능을 담당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모든 서술어는 제한의 기능 혹은 서술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한과 서술과 다소 관련된 개념으로서 화제와 평언(Topic vs. Comment: Hockett, 1958 참조)의 대조가 있다. 아래 (11)에 제시한 Lyons(1968)의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화제(topic)는 언급되고 있는 대상을 지칭하며, 평언(comment)은 이 대상에 대한 서술이다. 평언은 서술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화제는 제한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화제는 문장 내에서 언급되고 있는 대상으로서 일반적으로 명사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물론, 제한의 기능을 담당하는 서술어가 제공한 조건 등에 의해 화제(topic)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관련성은 있다.

- (11) Topic: the person or thing about which something is said
 Comment: the statement made about this person or thing

제한과 서술의 대조는 위의 (9)에서 제시한 Partee의 삼분 구조상에서 제한자(restrictor)와 핵심작용역(nuclear scope)의 대조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우선 Partee의 경우는 주절(matrix clause)에서만 정의한 개념적 구분이다. 반면에 제한과 서술의 개념은 종속절에도 순환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구체적 차이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Partee의 경우 종속절과 주절을 대비하여 종속절은 제한자, 주절은 핵심작용역으로 구분하였으나, 제한과 서술의 구분에서는 종속절과 주절의 관계에서는 대조를 정의하지 않고, 종속절 내에서 서술어에 대한 기능상의 분류가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Partee의 구분에서는 주요 서술부(main predication)만 핵심 작용역으로 분류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추론할 때, 부가적 서술부(secondary predication)는 제한자로 분류될 것이나, 우리의 구분에서는 이 경우에도 서술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마지막으로, Partee의 제한자의 경우 화제(topic), 맥락(context), 전제(presupposition), 격(case), 조건절 등 다양한 범주를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정의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제한과 서술의 분류에서는 서술어에 국한하여 이들이 절 내에서 담당하는 기능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3. 제한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의 비대칭성

본 절에서는 영어 및 한국어의 형용사에 자주 등장하는 제한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의 비대칭성을 비롯한 형용사 관련 몇 가지 현상을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비대칭성은 제한과 서술의 의미 기능에서 도출되는 자연스런 결과이며, 이들의 분포상의 제약은 형태적, 통사적 제약이 아닌 것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3.1 영어의 제한적(Attributive) 및 서술적(Predicative) 용법의 대조

영어 형용사에는 제한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 간의 차이점에 대한 관찰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Sweet, 1898, Jespersen, 1933, Jacobsson, 1961 등 참고). 또한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시한 것도 Marchand (1966), Bolinger(1967) 등으로 이론 언어학의 역사상 비교적 초기에 시도되었다. 우선, Bolinger(1967)와 Quirk et al(1985)을 종합하여 볼 때, 이들의 분포상의 커다란 차이점은 제한적 용법에만 국한되어 쓰이는 형용사는 매우 많은데 반하여, 서술적 용법에만 국한되어 사용되는 형용사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다.

-제한적 용법에만 국한되어 사용되는 경우: 다수의 형용사 (Quirk et al 1985)

제한적 용법의 사용은 아래 나열한 바와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부류에 속하는 형용사는 비교적 다수에 해당한다.

- a. 강화형용사(intensifying adjectives): *pure, real, total, sheer, complete, firm, clear, etc.*
- (12) a. That is pure fabrication.
b. *The fabrication is pure.
- (13) a. That was a total nonsense.
b. *The nonsense was total.

- b. 제한형용사(restrictive adjectives): *certain, principal, same, only, particular, very, etc.*
- (14) a. The only occasion was when I threw a farewell party.
b. *The occasion was only.
- (15) a. It is the main reason.
b. *The reason is main.
- c. 시간형용사(temporal adjectives): *former, old, past, possible, present, late, etc.*
- (16) a. A former president visited my company yesterday.
b. *The president is former.
- (17) a. I met with an old friend of mine.
b. *The friend that I met yesterday is old.
[cf. for the opposite of 'new']
- d. 동작주 수식어(agentive noun modifiers): *big, clever, hard, heavy, sound, etc.*
- (18) a. John is a big eater. ['someone who eats a lot']
b. *The eater is big.
- e. 명사파생 형용사(denominal adjectives): *atomic, criminal, polar, medical, musical, etc.*
- (19) a. He is a criminal lawyer.
['a lawyer specializing in cases of crime']
b. *The lawyer is criminal. ³⁾

-서술적 용법에만 사용되는 형용사의 경우: 매우 제한적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술적 용법에만 국한되어 사용되는 형용사는 아래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세 부류로 정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되는 부류에서 예외가 많다거나, 해당하는 형용사가 극소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국한성은 영어의 역사적 변천이나 구조를 고려할 때 왜 서술적 용법에만 국한되는지 설명이 가능한 점도 제한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의

3) 이와 유사한 문장으로 제시한 위의 예문 (3)과 같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의 의미가 아닌 '범죄적인'의 의미라면 허용된다.

비대칭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a. a- prefix 유형: *asleep, awake, alive, etc.*

(20) a. People are asleep/alive.

b. *The asleep/alive people returned from a long journey.

접두어 *a-*로 시작하는 형용사 중에 다수가 서술적 용법에만 쓰인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로, 이 유형의 접두어 *a-*는 고대 영어 전치사 *on/of*의 축소형으로 명사 등과 결합하여 서술형용사나 부사를 파생시키는 기능을 하였으며, 이러한 역사적 변천의 흔적으로서 서술적 용법에만 국한된다는 점은 설명될 수 있다.

b. 건강상태와 관련한 형용사: *ill, well, faint, unwell, etc.*

(21) a. He felt ill/faint/unwell.

b. *The ill/faint/unwell man hurried to the hospital.

이 부류에 속하는 형용사들은 생물의 일시적인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서술하는 어휘들로서 일반적으로 서술적으로만 쓰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매우 흔한 예외성을 보여 준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예외가 관찰된다.

(22) *sick*: the sick woman - The woman is sick

well: A well person need see a doctor only for a periodic checkup.

c. 보어를 취하는 형용사: *aware (of), subject (to), loath (to), etc.*

(23) a. The driver wasn't aware of the road condition.

b. *The aware driver prepared for a tough ride.

이 부류의 형용사의 제한성은 구조적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명사가 장형의 제한적 수식어를 취하지 않는 영어의 특성 상 아래 (24)와 같은 구문은 허용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보어를 취하는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서술적 용법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4) *The [aware of the road condition] driver prepared for a tough ride.

이 밖에도 서두에서 이미 소개한 대조로서 제한적 사용과 서술적 사용이 허용되기는 하나, 의미가 상이한 경우로서 (3), (4)와 같은 예가 있다. (3)의 경우 a는 변호사가 범죄자라는 의미이며, b는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라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4a)는 경찰관이 촌스런 것이고, (4b)는 지역적으로 농촌 경찰관이라는 의미이다.

- (3) a. That lawyer is criminal.
- b. He is a criminal lawyer.
- (4) a. The policeman is rural.
- b. He is a rural policeman.

이러한 차이를 Bolinger(1967: 21)는 지시 수식(reference modification)과 지시물 수식(referent modification)의 대조로서 설명하였다.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는 지시물(referent)의 특성을 기술하지만, 제한적 용법의 형용사는 지시하는 대상 자체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하는 의미(reference)를 수식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된 (a)의 경우에는 직업이 변호사와 경찰관인 특정한 인간에 관한 서술이기 때문에 변호사나 경찰관이 아닌 대상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제한적 용법으로 사용된 (b)의 경우에는 특정한 인물(referent)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lawyer와 policeman이라는 지시(reference)를 수식하기 때문에 특수한 의미인 변호사와 경찰관의 하위분류적인 구분으로 국한된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제한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의 차이로서 Bolinger(1967)가 관찰한 중요한 특징으로는 과거분사형 제한적 용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흔적을 남기는 것에 국한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a dented fender, a wrecked train, a smashed table, a bruised cheek, a frozen branch* 등은 가능하지만, (25)의 예에서처럼 머리를 긁은 결과에 대해 **a scratched head*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동일한 동사의 분사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 유리잔에 흠집을 내는 경우 *a scratched surface*는 가능하다.

- (25) a. John scratched his head. => *the scratched head
- b. John scratched the glass surface => the scratched surface

마찬가지로, *sent goods와 labeled goods, *rung bells와 dented bells의 대조도 관찰된다.

제한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의 중요한 차이점으로 다루어져야 할 특징으로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인 성향을 가진 특성은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고, 제한적 용법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아래 (26)과 같은 대조가 발생된다.

- (26) a. The man is ready. => *a ready man [참고, a ready wit]
 b. Are your tools handy? : 'conveniently at hand'
 c. a handy tool: 'a useful tool'

(26a)는 일시적인 준비상태를 나타내는 의미의 *ready*로서는 **a ready man*과 같이 제한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영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26b,c)에서는 일시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가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b)과 영속적인 특징으로서 편리한 도구라는 의미로 분리가 된다.

3.2 한국어 예문

한국어 [형용사 + 명사] 구문은 영어의 해당 구문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아래 예문 (27)에서 예시하듯이 한국어의 경우 대부분 형용사에 관형형 어미를 첨가한 관계절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 (27) a. [머리가 짧] + 은 + 여자
 b. [어제 먹] + 은 + 사과
 c. [검] + 은 + 눈동자
- (28) a. 머리가 짧다.
 b. 어제 먹었다.
 c. 눈동자가 검다.

이를 영어의 경우와 비교하면 차이가 명백해진다. 영어의 경우에는 아래 (29), (30)의 대조에서 보여 주듯이 서술적 용법에는 밑줄 친 *are*, *became*과 같은 형용사에 선행하는 연결동사(copula)가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제

한적 용법에는 이러한 선행 동사가 나타날 수 없다.

- (29) a. The ladies are happy.
 b. The ladies became sleepy.
- (30) a. The happy ladies laughed loudly.
 b. The sleepy ladies tried to find a place to lie down on.

한국어의 경우에는 관계절 구문이기 때문에 관형형 어미를 제외하고는 동사구/형용사구 내에서 영어구문이 보여주는 제한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을 구분하는 형태, 구조적 차이가 없다.

한국어가 영어구문과 이러한 형태, 구조적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상에는 위에서 관찰된 현상이 한국어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미 서두에서 소개한 예문 (1), (2)와 (31)-(32)는 제한적 용법은 가능하나 서술적 용법은 불가능한 경우를 보여 주고 있다.

- (1) a. 진정한 영웅
 b. *그 영웅은 진정하다.
- (2) a. 오랜 친구
 b. *그 친구는 오래다.
- (31) a. 굳은 맹세
 b. *그 맹세가 굳었다.
- (32) a. 전 협회 회장님
 b. *저 협회 회장님은 전이다.

아래 (33)의 경우도 위와 유사한 경우의 예이다. 그러나, 이 예는 역사적 변천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경우이다. 중세 국어까지는 제한적, 서술적 용법 모두 사용되었으나, 현재에는 제한적 용법만이 사용된다. 참고로, 영남방언에서는 아직 (33b)의 용례가 관찰된다.

- (33) a. 혈값으로 샀다.
 b. *그 값이 매우 혈했다.

역사적 변천과정에서도 비대칭성이 관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 생성된 관용표현에서도 이러한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아래 예문 (34)는 이러

한 용례이다.

- (34) a. 웃기는 짜장이야.
b. *저 짜장이 웃긴다.

비유적인 표현이나, 외국어 번역투의 구문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관찰된다. 예문 (35)는 영어의 경우 비유적인 표현에서는 제한적 용법이 더 자유로운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한국어 번역으로서 (36)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 (35) a. an angry storm
b. *The storm is angry (Bolinger 1967:2)

- (36) a. 성난 파도
b. *파도가 성났다.

이와 같이 외국어의 번역어투는 제한적 용법으로는 모두 정착이 되나, 서술적 용법으로는 정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아래 (37)의 영어 구문은 둘 다 허용이 되는 반면, 이에 대한 일대일 번역에서는 오직 제한적 용법의 번역만이 가능하다.

- (37) a. old friendship: 오랜 우정
b. The friendship is old: *그 우정은 오래다.

위에서 네 가지 경우의 비대칭성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대칭성에 반대 경우는 발견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반대의 경우로 가장 근소한 것이 다음의 예를 들 수 있겠다.

- (38) a. 큰 손 : 손이 크다.
b. ?넓은 발: 발이 넓다.

‘손이 크다’에 대한 제한적 용법 ‘큰 손’은 가능하다. 그러나, ‘발이 넓다’라는 관용표현에 대한 제한적 용법으로 ‘넓은 발’은 예외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는 용법상의 차이라기보다는 어휘목록 상의

방해요소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이와 유사한 의미로 이미 '마당밭'이라는 어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넓은 밭'이라는 표현도 약간의 문맥이 제공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다음 예문에서는 받아 들여 질 수 있다.

- (39) 그 분야에서 이루어 놓은 넓은 밭을 활용하여 대리점을 운영하는 게 어때?

이상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형태, 구조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에서 영어 형용사 구문과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는 바로 제한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상의 차이는 형태적, 구조적 원인보다는 의미 기능적 원인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4. 부정확한 한정표현

Donnellan(1966)은 부정확하게 기술되지만 허용되는 한정명사구에 대한 논의로 유명하다. 두 개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법정 의 상황에서 방청석에서 나누는 대화이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으며, 매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Jones라는 자에 대해 A가 하는 발언에 대해서 화자 B는 이미 Smith가 타살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Smith's murderer라는 한정표현을 Jones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40) A: Smith's murderer is insane.
B: Yes, he is.

아래 (41)의 예문도 이와 유사한 경우이다. 화자 B는 이미 Jones라는 자가 들고 있는 마티니 잔에 마티니가 담겨 있지 않고 생수만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화자 A의 부정확한 기술을 용납하며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 (41) A: Who is the man drinking a martini?
B: It's Jones.

이에 반해 서술부분에 대한 부정확성은 일반적으로 엄격하게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아래 대화에서 화자 B가 Jones라는 자가 Alabama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경우, A의 발언은 제지를 받게 되는 것이다.

- (42) A: Smith's murderer is from Mississippi.
 B: Are you sure?

위의 예문은 어떤 면에서 정당한 예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초점이 되는 정보가 여기에서는 서술부에 해당하고, 이것에 대한 사실성은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점이 서술부가 아닌 경우에는 서술부에 대해 유사한 정도의 사실성이 요구되는 것이 약간 변형된 아래의 예에서 증명된다. 대화 상황은 다음과 같다: 화자 B는 Jones라는 자가 Alabama 출신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하루 전 회사동료인 A와 B를 비롯한 부서 직원들에게 인사부에서 Alabama 출신 사원을 현지 조사를 위해 한 명 추천해 달라는 공지가 있었다. 이 경우 화자 A가 아래와 같이 발언하는 경우, 대화의 문맥상 Alabama 출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이에 대해 부정확한 표현을 무시하고 (a)처럼 'Yes, he is'라고 허용하지 않으며, (b), (c)와 같이 제지나, 교정, 확인을 하게 된다.⁴⁾

- (43) A: Jones is from Mississippi.
 B: a. #Yes, he is.
 b. Are you sure he's from Alabama?
 c. Are you sure he's from Mississippi?

이런 점에서 제한과 서술의 기능에는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4) 반면에 위의 부정확한 한정표현의 경우 이와 같은 교정의 과정은 오히려 어색하다. 이일반적인 대화상황에서 (ib)와 같은 응답은 매우 무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i) a. Who is the man drinking a martini?
 b. ??The man drinking water is Jones.

5. 형용사의 창조적 사용과 제한적 용법의 생략성

위에서도 잠시 관용적 표현에 있어서 비대칭성을 언급했지만, 일반적으로 제한적 용법의 창조적 사용은 매우 생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영어 단어 *fast*에 대한 다양하고 창조적인 의미가 사용된 경우를 나열한 것이다. (Pustejovsky and Boguraev(1993), Pustejovsky(1995) 참조). 이 표현들을 살펴 보면, 제한적 용법으로는 문맥에 따라 여러 다양한 의미로 매우 자연스럽게 쓰이고 이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44) a. a fast typist:
a person who performs the act of typing quickly
- b. Rackets is a fast game:
the motions involved in the game are rapid and swift
- c. a fast book:
one that can be read in a short time
- d. a fast green:
a green on which a golf ball moves fast
- e. You may decide that a man will be able to make the fast, difficult decisions:
a process which takes a short amount of time
- f. The Autobahn is the fastest motorway in Germany:
a motorway capable of sustaining high speed
- g. I need a fast garage for my car, since we leave on Saturday:
the length of time needed for a repair by the garage is short

그러나, 이 형용사의 서술적 사용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be* 동사와 같은 연결동사(copula)와는 같이 사용되기 어렵고, 아래와 같이 일반동사와 같이 사용되어 부사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45) a. ??The book was very fast. =>
The book was read very fast. (OK)
- b. ?The decisions were fast. =>

The decisions were made fast. (OK)

c. ??The garage was fast. =>

The garage made repairs fast. (OK)

이는 연결동사와 형용사로 이루어진 서술적 용법으로는 의미가 불명확하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왜 제한적 용법의 경우에는 불충분한 의미가 허용되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제한적 용법의 경우와 서술적 용법의 경우에 있어서 어휘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 fast garage*와 *the garage was fast*에서 어휘정보의 양을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대칭은 위에서 나타난 비대칭성과 함께 다음 절에서 설명을 제공한다.

6. 비대칭성의 원인분석

이상에서 영어와 한국어 자료를 대상으로 제한과 서술의 차이점을 살펴 보았다. 이 차이점으로서 크게, (i) 영어 및 한국어에서 제한적 용법에만 국한되어 사용되는 형용사가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는 사실, (ii) 관용표현 및 번역투의 구문에서의 제한적 용법 위주의 허용도, (iii) 한정표현에서의 부정확한 표현 사용에 대한 허용도의 차이, (iv) 형용사의 창조적 사용과 생략 허용성의 차이, (v) 제한적 용법의 경우에는 동사의 과거분사형이 쓰이기 위해서는 사건의 결과로서 흔적이 명백해야 하며, (vi) 제한적 용법에는 어느 정도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형용사에 국한하는 점, (vii) 제한적 용법은 지시의 수식이고, 서술적 용법은 지시물 수식이라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자면, 대조적인 차이에 관한 관찰이 아닌, (i)-(iv)와 같은 허용도에 관한 관찰에서는 각각의 분야에서 제한적 용법이 서술적 용법보다 허용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위에서 관찰된 차이점 중에서 마지막 항목인 (vii)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한과 서술이라는 언어기능의 기본적인 목적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제한(restriction)은 해당 문장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대상물을 선정하는 목적(referential purpose)을 가지는 반면, 서술(predication)은 선정된 대상물에 대한 동작, 특성 및 상태에 관한 묘사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 상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의 비대칭성의 설명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까. 이는 대화의 문맥상의 어휘적, 상황적 정보 때문에 다소 부정확한 표현 및 생략적 표현에 대한 용인의 정도에 있어서의 비대칭성을 유발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 제시한 영어 명사구 구조와 분포도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46) 영어 명사구 구조와 분포 [Quirk et al(1985:1350-1352)]

		전체	단순명사구	복합명사구
전체 자료	주어	46.6%	<u>39.8%</u>	<u>6.8%</u>
	비주어	53.4%	28.0%	25.4%
비공식 발화	주어	52.7%	<u>49.2%</u>	<u>3.5%</u>
	비주어	47.3%	27.9%	19.4%

주어 및 화제(topic)에 대한 서술이 문장의 주요 기능이며, 영어에서 주어와 화제는 중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밑줄 친 부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자료와 비공식 발화에서 공통적으로 주어의 경우 단순 명사구가 복합 명사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화제(topic)를 선정하는 과정은 가능한 방법 중 가장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일반적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화제가 되는 지시물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작용하는 제한(restriction)의 기능 역시, 이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생략, 창조적 어휘해석, 심지어는 잘못된 기술도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지시물을 명시하는 과정에서는 언어적 맥락과 언어외적인 맥락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서술의 대상으로서 지시물을 명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정확성'과 '신속성'이라고 한다면, 이 둘 사이에는 끊임없는 긴장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지나치게 정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제한을 담당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지나친 신속성을 추구하다 보면, 매우 해독하기 힘든 생략으로 일관하여 의사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본 논문에서 다룬 자료에서 관찰한 바로는 자연언어에서 정확성과 신속성이 동등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대화상황에서는 언어 및 언어외적 맥락이 적극 활용되며, 이에 따라 신속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지시물을 찾아내는 과정에 사용되는 제한적 용법의 형용사와 이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는 대화맥락에서 이미 주어진 대상에 대한 일종의 '이름 붙이기'의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다시 말해, 제한적 용법의 경우, 어휘적 의미로부터 귀납적으로 전체 의미를 도출하여

이에 합당한 대상을 지칭하는 경우보다는 상황적으로 주어진 대상에 대해 연역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적인 이유 때문에, 정확한 표현보다는 부정확한 표현이 허용되고, 어휘의 생략현상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창조적인 어휘사용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제한적 용법이 지시물을 명시하는데 제한을 가한다는 기능상의 특성은 또한 제한적 용법이 일시적인 특성을 묘사하는 형용사를 허용하지 않는지에 관한 설명을 제공한다. 일시적인 특성으로서는 지시물의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a scratched head*의 예에서 관찰한 제한적 용법에서 과거분사형이 사용되는 경우에 사건의 결과로서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제약도 이와 유사하게 설명될 수 있다. 즉,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화제로서 지시물을 선택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서술은 주어진 화제 및 지시물에 관한 특성을 기술하는 것이며, 문장의 핵심적 내용이므로 생략이나 부정확성은 용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선택된 개체에 관한 기술이므로 본래적(inherent) 서술이 된다.

Bolinger가 제안한 제한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 사이의 의미구분은 (즉, 위의 (vii)항목) 매우 타당한 관찰로 여겨진다. 그러나, 다음 예문과 같은 반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다음 예문 (47)에서 (a)는 'good'이라는 형용사의 제한적 사용으로서 scholar가 가리키는 지시물을 직접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의 scholar를 수식하여 이 의미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학자로서 훌륭하다는 의미이며, John이 훌륭하다는 것에 관한 언급이 아니다. 이 점은 Bolinger의 관찰과 일치되는 점이다. 그러나, (b)의 경우 인간으로서 훌륭하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자로서 훌륭하다는 의미도 존재한다. 이는 Bolinger의 관찰에 따르면 예상되지 않는 결과이다.

- (47) a. John is a good scholar
b. The scholar is good.

이에 대해서는 일부 형용사의 내포적(intensional) 의미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아래 (48)과 같은 문장은 *at lying*, *at math* 등과 같은 표현이 맥락에서 명백한 경우 생략적으로 사용되어 지시물에 대한 일반적 서술이 아닌, 지시의 수식(reference modification)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위의 경우에 이와 같은 사례에 속한다. 이에 반해 제한적 사용의

good scholar의 경우에는 항상 바로 뒤에 지시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언어적 맥락이 주어져 있고 따라서 항상 내포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48) a. He is very good (at lying).
b. You are very good (at math).

이상으로 두 가지 용법과 관련하여 관찰된 특성과 대조성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 제공되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첫째 항목(i)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자. 지금까지 제공한 설명만으로는 왜 제한적 용법에만 사용되는 형용사가 반대의 경우보다 많은가에 대한 답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위에서 주장한 바대로, 지시물을 명시하는데 있어서 신속성이 정확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제한적 용법에는 생략적 표현을 허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해답이 된다. 위 3.1에서 제시한 제한적 용법에만 사용되는 형용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형용사 + 명사]의 명사구 구문에서 형용사와 명사의 의미적 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a total nonsense*, *the only occasion* 등의 경우에는 *total*과 *only*가 부사의 영역인 강화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a former president*, *a big eater*와 같은 명사구에서도 *former*는 시간부사의 기능, *big*은 동작주 *eater*의 동작에 대한 수식을 담당하는 것으로 부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이다. *an alleged killer*와 같은 표현에서도 *alleged*는 제한적으로만 사용되는 예이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alleged*와 *killer* 간의 직접적 의미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alleged*는 *alleged(x is a killer)*라는 형식으로 의미적으로 문장부사 *allegedly*와 연결된다. 따라서, 제한적 용법에서 허용되는 생략에 덧붙여, 통사적 구조 때문에 [x + 명사]의 구문에서는 x에 부사가 나타날 수 없고, 이 부사의 형용사에 해당하는 형태가 나타난 결과가 보여 주는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7.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형용사의 제한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을 자세히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구문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두 용법 사이에 관찰된 차이점과 비대칭성에 대한 기능적 설명을 모색하였다. 제한과 서술은 언어사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적 구분으로

서, 제한은 화제(topic)를 선정(reference)하는데 있어서 의미를 명시하는 것이며, 서술은 이 화제에 대한 상황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predication)을 하는 것이다. 이에 부가하여, 화제의 선정에 있어서 언어 및 비언어적 맥락이 용이하게 제공되는 대화상황이 자주 전개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제한적 용법의 환경에서는 신속성이 우선하고, 서술적 용법의 환경에서 정확성이 우선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왜 (i) 영어 및 한국어에서 제한적 용법에만 국한되어 사용되는 형용사가 반대의 경우보다 많은지, (ii) 관용표현 및 번역구문에서 제한적 용법이 더 쉽게 허용되는지, (iii) 부정확한 한정표현의 사용이 허용될 수 있는지, (iv) 형용사의 창조적 사용과 생략 허용성의 차이, (v) 제한적 용법의 경우에는 동사의 과거분사형이 쓰이기 위해서는 사건의 결과로서 흔적이 명백해야 하며, (vi) 제한적 용법에는 어느 정도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형용사에 국한하는 점 등에 대한 기능적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밝혔다.

참고문헌

- Bolinger, D. (1967). Adjectives in English: attribution and predication. *Lingua* 18: 1-34.
- Bhat, D.N.S. (1994). *The Adjectival Category*. Amsterdam: John Benjamins.
- Donnellan, K. (1966). Reference and Definite Descriptions. *Philosophical Review* 75.
- Hockett, C. (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MacMillan.
- Jacobsson, B. (1961). An Unexpected Usage: ahead, alive, and the like before Nouns. *Moderna Sprak* 56: 17-26.
- Jespersen, O. (1933).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London: Allen and Unwin.
- Lyons, J. (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chand, H. (1966). On Attributive and Predicative Derived Adjectives and Some Problems Related to the Distinction. *Anglia* 84:131-149.
- Partee, B. H. (1995). Quantificational Structures and Compositionality. in Bach et al. eds. *Quantification in Natural Languages*, vol. 2:

- 541-601. Kluwer Academic Publishers.
- Pustejovsky, J. (1995). *The Generative Lexicon*. MIT Press.
- Pustejovsky, J. and B. Boguraev. (1993). Lexical Knowledge Representation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rtificial Intelligence 63*: 193-223.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Sapir, E. (1921). *Language*. New York: Harcourt Brace.
- Sweet, H. (1898). *A New English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윤재학

449-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1번지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영어학과

전화: (031)201-2254

이메일: jyoona@khu.ac.kr

Received: 10 October, 2004

Revised: 23 November, 2004

Accepted: 29 November, 2004